

부처님오신날 내가 만든 전통등 밝히자

전통등 전승공방 '우리등' 강좌

"을 부처님오신날에는 내가 만든 전통등(傳統燈)을 밝혀보자."

부처님오신날(5월22일)을 두 달 남짓 남겨둔 요즘, 전통등을 직접 내 손으로 만들어 밝혀보려는 불자들이 늘고 있다.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 정성들여 만든 연등보다 완제품 연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손으로 정성들여 꼼꼼히 예쁘게 만든 연등이야말로 '등공양'의 의미를 한층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요새 인사동에 위치한 '전통등 전승공방'은 전통등에 대한 문의 전화와 방문으로 눈코 뜰 새가 없다. 하루에도 수 십통의 문의전화와 걸려올 뿐만 아니라 손님과 일반인들이 전통등을 배우겠다고 찾는 일이 최근 들어 부쩍 잦아졌다. '전통등 전승공방(02-723-0306)'은 97년 4월, 조계사에서 수박등·종(鐘)등·목어등·코끼리등 등 20여점의 전통등을 재현해 처음 선보였던 '전통등 연구모임'의 백창호씨(30)가 지난 1월 문을 연

곳. <동국세시기> <열랑세시기> <경국세시기> 등의 문헌을 바탕으로 노스님과 민속학자의 고증을 통해 전통등을 연구하고 있는 백씨는 "전통적인 '우리 등'을 일반에 널리 보급하기 위해 공방을 열게됐다"고 밝힌다. 만들기가 어렵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통등에 대한 관심은 98년

"정성 담은만큼 아름다워" 외국인들도 수강 2주 정도면 '수박등' 완성

년 봄사 전시를 거치며 부쩍 높아졌다. 전통등은 단순한 장식품을 넘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만큼 부처님께 올릴 수 있는 '정성'의 결정체로 누구에게나 감탄을 살 정도로 아름답고 섬세하다. 그래서 지난해 제등행렬 때도 불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현재 '전통등'을 배우고 있는 수강생은 15명 정도로, 이 가운데는



◇인사동 '전통등 전승공방'에서 수강생들이 전통등을 만들고 있는 모습.

독일·노르웨이·일본 등 외국인 4명도 포함돼 있다. 전통등 공방에서는 대나무를 직접 깎는 것에서부터 모양을 만든 후 한지를 붙이고 채색하는 것까지 모두 손수하게 되는데, 기초과정부터 꼼꼼히 배운다면 사할이나 가정에서도 간단한 전통등 정도는 만드는 법을 알려 줄 수 있다.

백씨는 "등을 제작하는 과정은 곧 신심(信心)을 표현하는 과정이자 신심을 담은 과정이므로 정확하

면서 정성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씨는 현재 조계종 포교원에서 발행되는 월간 <법회와 설법>(02-720-7060)에도 전통등 만들기를 연재하고 있다.

약 2주 정도면 초보자도 함께 '수박등'을, 2~3개월만 배우면 '복등' '주마등' 등을 만들 수 있다. 전통등 만드는 법을 배우 을 부처님오신날에는 내가 다니는 사찰과 집에 점등 등으로 장엄해 보자. 김정은 기자(jekim@buddhania.com)

명사들의 건강비결 ⑨



최 동 원

<동화사 신도회장>

고회를 넘긴 나이에 조계종 교구신도회 중에서 홍일점으로 제9교구 동화사 신도회장을 맡고 있는 최동원 보살(76·법명 법장행). 회회장을 만나 본 사람은 누구나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 애걸 자주 들었습니다. 항상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가짐이 건강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최회장은 대구 여성계의 대모(代母)로 불릴 정도로 정당 및 사회활동 경력에 화려하다. 지금까지 대구여성경영자회장과 여성단체협의회회장 등 20여개 단체장을 거쳤고 현재는 대구광역시 원로자문협의회회원 등의 보직을 겸하고 있다. 그런 그가 마음 비우기란 쉽지 않은 일이 아니었을까.

"크고 넓게 보고요 하지요. 남과의 견해차가 생겼을 때

마음 비우고 긍정적 자세 지녀 평소 많이 걷고 전통채식 즐겨

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려고 하고, 가급적 이해타산을 떠나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자주 다닌 등산에서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줄 아는 품새를 키웠다는 최회장은 항상 '회원들 보다 못한 사람으로서 심부름한다는 생각을 갖고' 모임의 장(長)을 수행한다고 한다.

수면시간은 하루 4~5시간 정도. 가능한 많이 걷고자 해 3~4층 정도의 계단은 가볍게 오르내린다.

"오후불식은 못해도 저녁식사는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늦게 먹게될 경우에는 굶기도 해요."

즐거 먹는 음식은 편장찌개와 마른 생멸치, 특히 멸치는 간식처럼 즐기며 기차여행을 떠날때는 꼭 휴대한다고. 칼슘성분이 많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좋은 식품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한다. 감자나 고구마로 만든 전통음식과 채소를 가까이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아이들한테도 햄버거나 과자같은 서양음식은 가급적 먹지 않는다.

최동원회장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돌 아님 도리로 조화를 이뤄가는 생활태도"라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nia.com)

대불련 '인터넷신문' 창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한승희)가 '대불련 인터넷신문'을 창간해 4일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대불련 인터넷신문'은 그동안 PC통신 천리안을 통해 운영해온 '대불련포럼'(go.jekbun)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전국 173개 대학의 불교학

생회 소식 및 교계 소식을 제 공할 예정이다. 기사는 주간으로 업데이트되며 △뉴스/정보

△관련 사이트 △불교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독자투고 등이 서비스된다. <http://www.inews.org/kbunews>

bn 헤초음악회 24·31일 방영

2월27일 국립중앙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2월의 문화인물 '헤초스님 기념 음악회'가 24일과 31일 오전11시30분부터 50분 동안 불교TV '32스페셜' 시간에 녹화 방영된다. 유승엽씨의 오키나와 연주와 장지현 작사, 김희경 작곡의 창작 국악교성곡 '헤초'로 이뤄진 이번 음악회는 2일 오전9시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 14일 오전1시 케이블TV 국립영상 K-TV(ch. 14)에서 각각 방송되었다.

BBS 정보가이드 환경 공청회

불교방송의 시사·정보 프로그램 '정연수의 정보 가이드'(담담PD 최은희·매일 오후 6시15분~7시)가 24·31일 수요특집 '라디오 공청회'를 마련한다.

환경 문제를 소재로 한 이번 특집 프로는 24일 '대기오염의 주범,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 점검' 31일 '영안실비리 근절대책은 없는가' 등의 순서로 방송된다.

나무심어 맑고 푸른세상 만들기

다례원·선덕사 요목 무료보급...삼전복지관·천중사 식목대회

부처님오신날과 식목일을 맞아 교계에 무료 요목나눠주기 및 심기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다례원과 광주 선덕사가 나무요목을 나눠주고, 삼전복지관과 천중사는 나무심기행사를 개최하며 '심정정(心淨淨) 국토청정(國土淸淨)'의 의미를 확산시키고 있다.

다례원(원장 정승연)은 지난해에 이어 제2회 생명방송 나무나눠주기 행사를 4월1일부터 5일까지 갖는다. 맑고 푸른 세상을 만든다 라는 주제로 동방원예종묘에서 요목 3만5천그루를 협찬받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소나무 살구나무 목련 무궁화 산수유등 5개수종을 한류음으로 불자 1인당 5그루씩 무료로 나눠준다. 다례원은 나무심기로 생명방송에 나서자는 의미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여 각 사찰에 배포할 예정이다. (02)428-6222~4

정승연원장은 "불자들의 동참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맑고 밝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행사취지를 밝혔다. (인터뷰 4면)

송기원 삼전종합복지관(관장 보각스님)은 식목일인 4월 5일 오후 1시 녹지공원과 복지관에서 '푸른 녹지조성을 위한 나무심기대회'를 개최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현장체험과 가족단위 나무심기, 자연보호활동, 협동작품그리기 행사 등이 다채롭게 열린다. (02)421-6077

천중사(주지 규범)도 4월4일 오후 2시 '가족과 함께 새꽃동산 꾸미기' 행사를 갖는다. 천중사는 법회 후 가족단위로 경내에 2백여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이날 심는 나무에는 심는 사람의 명패를 붙여 지속적으로 관리에도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유실수 심기와 꽃밭꾸미기' 행사를 가졌던 주지 규범스님은 "자신이 심은 꽃과 나무를 마음



◇부처님오신날과 식목일을 맞아 나무심기 행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천중사 나무심기 행사.

을 가꾸듯이 할 수 있는 것 같아 매우 유익하다"고 밝혔다. (02)914-3558

선덕사(주지 행법)는 '유자꽃 향기와 함께 사랑을 나누시다'라는 주제로 사랑의 유자요목 나누어주기 행사를 20일 선덕사에서 가졌다. 전남 진도산 3~5년생 분재용 유자나무를 선착순 1천명에게 전달해 큰 호응을 받았다. (062)263-4660

김원우 기자(wkim@buddhania.com)

단 신

국제워크캠프 참가 모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위원장 박태준) 청소년팀은 약 40여 개국이 개최하는 '99 워크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워크캠프는 보통 2~3주 동안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보호, 문화재 보호, 고고학 조사 등 여러 가지 주제와 내용을 개최되며, 참가자는 각 국가에서 온 18~30세

청년 10~30명으로 구성된다. 참가 희망자는 인터넷에서 국가별, 시기별, 활동별 내용을 검토해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http://youth.unesco.or.kr/volunteer>

5월2일 연꽃노래잔치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와 서

울불교청년회는 5월2일 열리는 제11회 전국 어린이찬불가 경연대회 '연꽃노래잔치'에 참가할 어린이를 모집한다. 모집부부는 독창 및 중·합창으로 유치부·저학년부·고학년부. 지정곡은 △유치부 '굴렁쇠' '누가 이불까' '부처님은 제일' 등 △저학년부 '고요한 밤' '정다운 미소' '나의 큰 소원' 등 중·합창곡은 자유곡이다. 예선전은 4월18일 불교문화교육관 오후 2시. (02)730-9108

관음장학회 장학금 수여

제주불교여성관음클럽(회장 김정자)은 24일 제주 관음사에서 관음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남녕고와 제주공고 학생 4명에게 각 50만원씩 2백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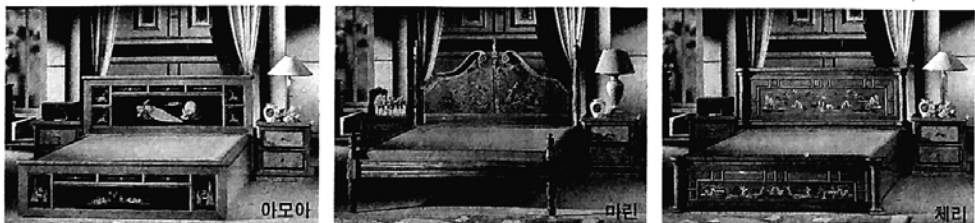
방송 소식

몸에는 생기를... 생활에는 윤택을... 아~보아

자연 그대로를 침실에 옮겨 드립니다.

이젠 바꾸어요. 세상이 달라지니까...

* 사찰을 통한 단체 구입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아~보아는 다릅니다. 품질이 다릅니다. 서비스와 가격만족은 물론 효능은 더욱 뛰어납니다.



● 황토 흙침대의 명품으로 남았습니다.

하나 살아있는 황토흙을 천연 그대로 사용합니다. 동 황토흙의 양이 국내 최고입니다. 셋 전지파장 Zero를 실현하였습니다.

년 황토편의 내구력이 타사제품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다섯 두께는 통편을 광폭으로 사용하여, 소바지가 직접 휴면두께 동편두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섯 최고의 원적외선 방출중대 알콜 심상일부금용 계유 일부본매(최장36개월) 여벌 타사제품까지도 완벽한 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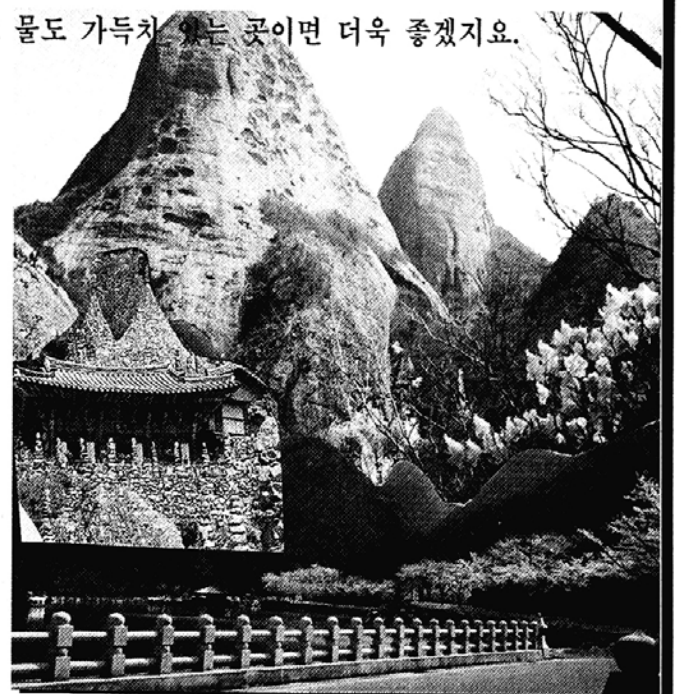
건강한 생활을 도와주는 AHBOA MUD BED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47-5 동희빌딩2층 고객상담실: (02)3431-0322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탐사

— 탐영제 방생 —



· 관광과 방생을 한 곳에서 ·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탐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심심장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 (0655) 33-2900, 0303 (0655) 32-0652, 0072

· 약도

